

변화와 성장의 서사로 <단군신화> 읽기

조희정*

목차

1. <단군신화> 읽기 방법
2. 단군 탄생 과정 속 변화: 세 가지 화(化)
3. 단군 탄생 과정 속 성장: 신(身)에서 혼(婚)으로
4. <단군신화> 인간-되기 서사의 의미

국문초록

문학교육의 국면에서 <단군신화> 속 상징을 털어내고 <단군신화>를 읽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까? <단군신화>의 기존 독해는 텍스트가 지닌 상징성과 신성성의 확인에 집중되어 있었던바, 텍스트의 해석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면이 있다. 텍스트에 집중할 때, 단군 탄생 과정은 세상의 변화-웅녀의 변화-환웅의 변화를 보여주는 변화의 서사이자 화(化)-신(身)-혼(婚)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서사라 할 수 있다.

단군 탄생 과정 속 변화는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옴으로써 본격화된다. 이어지는 곰과 범의 인간-되기 사건은 환웅이 다스리는 인간 세상 변화의 극적인 사례로 파악할 수 있다. 곰과 범은 존재 변화의 서사를 함께 소망하였던 친밀한 관계였다. 혹독한 시험 과정에서 곰은 존재 변화 서사 속 희망을 품고 금기하여 여인의 몸을 얻은 반면 범은 존재 유지의 서사를 선택하며 금기를 어기면서 인간의 몸으로 변화하지 못하였다.

곰은 홀로 여인의 몸을 얻어 웅녀로 변화하였지만 아직 인간-되기의 소망

* 조선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이 완수된 것은 아니었다. 여인의 몸은 얻었지만 짝을 잃은 웅녀는 부모-자식 관계를 얻기 위한 혼인 관계를 소망하게 되고, 잠시 변화한 환웅과 결혼하여 아들 단군을 낳게 된다. 단군의 탄생 과정은 세상의 변화를 바탕으로 곶-여인의 몸-아내·어머니로 이어지며 세상의 변화-육체의 변화-관계의 변화를 통한 진정한 인간-되기의 서사를 보여준다.

<단군신화>는 결국 우리 민족이 생각했던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차근차근 형상화된 이야기이자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되묻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단군신화>에서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서사를 지닌 존재야말로 진정한 인간-되기에 다다를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단군신화>가 내포하고 있는 이상의 질문과 답변은 <단군신화>의 현대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게 한다.

⊕ **핵심어** | 단군신화, 문학교육, 감상, 변화, 성장, 서사, 인간-되기

1. <단군신화> 읽기 방법

문학교육의 국면에서 <단군신화> 속 상징을 털어내고 <단군신화>를 읽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까? 나아가 이것은 필요한 독해일까? 본 논문은 이 질문의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자 한다. 우리에게 <단군신화>만큼 익숙한 텍스트도 드물 터인데, 문학교육에서 새삼스레 <단군신화>의 독해를 문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군신화>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러한 질문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단군신화>가 지닌 중요한 가치만큼 선행 연구의 층은 두텁다. 문학회 뿐만 아니라 역사학계와 사상계, 종교학계 등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¹⁾가

1) 연구사 전체를 언급하기는 불가능하기에 문학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제시한다. 전규태, 「한국 신화의 문학적 연구서설」, 『인문과학』 13,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65 ; 정병욱·이어령, 『고전의 바다』, 현암사, 1977, 18-25면 참조 ;

엄청나며, 근대적 변용, 현대적 수용, 교육 등²⁾ 등 <단군신화> 수용의 차원도 연구 주제로 다루어진 바 있다. 연구사의 지층이 두터운 만큼 <단군신화>에 대한 역사학계의 접근과 문학계의 해석 중 중심적 지위를 차지한 관점은 <단군신화>에 대한 상식적 견해로 통용되고 있다.

가령 “역사학계에서는 환웅을 도래한 농경민의 수장으로 보고 웅녀를 곰을 토tem으로 하는 선주한 어렵부족으로 보아 환웅의 천신숭배집단과 웅녀의 곰토tem 부족이 통합되어 하나의 통치집단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환웅의 집단인 북몽골족과 웅녀집단인 고아시아족의 통합에 의해 한민족의 원형인 한(韓), 예(濊), 맥(貊)이 형성되는 것³⁾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단군신화>에 접근하는 대표적 해석이라 할 만하다.

또한 <단군신화>가 지닌 문학사적 의의와 갈래의 특징에 주목하여 신화적 맥락에서 단군의 상징성과 의미 체계를 해명하는 관점, 즉 천신족인 환웅과 지상족인 웅녀가 결합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해석⁴⁾은 문학 연구에서 <단군신화>에 관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건국신화가 고대 문학의 대표적인 서사 갈래라는 점을 전제로 삼아 <단군신화>의 상징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35-50면 참조 ; 강명혜, 「단군신화 새롭게 읽기」, 『동방학』 1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7 ; 임재해, 「단군신화로 본 고조선 문화의 기원 재인식」, 『고조선단군학』 19, 단군학회, 2008 ; 강영경, 「단군신화에 나타난 웅녀의 역할」, 『여성과 역사』 16, 한국여성사학회, 2012 ; 김기호, 「단군신화에 관한 문학적 연구 현황과 전망」,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 이화형, 「단군신화의 주체의식 검토」, 『우리어문연구』 47, 우리어문학회, 2013.

- 2) 문홍구, 「단군신화 교육 방법론 연구」, 『새국어교육』 59-1, 한국국어교육학회, 2000 ; 전영숙, 「단군 이야기와 문학치료」, 『문학치료연구』 1, 한국문학치료학회, 2004 ; 조현설, 「근대계몽기 단군신화의 탈신화화와 재신화화」, 『민족문학사연구』 32, 민족문학사학회, 2006 ; 이병찬, 「단군신화 교육의 전제와 방법적 제안」, 『국제어문』 53, 국제어문학회, 2011 ; 황혜진, 「단군신화에 대한 현대 학습자의 수용 양상과 특성」, 『국어교육학연구』 43, 국어교육학회, 2012 ; 김성호, 「문화적 공존을 위한 단군신화의 재해석」, 『글로벌문화컨텐츠』 8, 글로벌문화컨텐츠학회, 2012.
- 3)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48면.
- 4) 정병욱·이어령, 『고전의 바다』, 현암사, 1977, 18-25면 참조 ;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35-50면 참조.

성을 읽어내는 방식이다.

이상의 시각은 문학 교과서에서 <단군신화> 단원을 구성하는 기본 관점이기도 하다.⁵⁾ 2015년판 문학 교과서⁶⁾에서 총 3종이 한국문학의 역사와 범위를 다루는 대단원의 하위 소단원 제재로 <단군신화>를 채택하였다. 이들은 각각 “영웅성과 신성성”(권영민 외), “고대인들의 사고방식”(김대용 외), “신성성과 상징성”(김창원 외) 등 건국신화 갈래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어 소단원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현대 학습자들의 <단군신화> 수용 양상⁷⁾도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의 시조 신화라는 의미를 적극 인정하며 홍익인간 이념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하고, 곰·범의 성격에 비취 스스로를 반성하곤 하지만 <단군신화> 관련 지식을 수용하는 차원이나 <단군신화>에 대한 교훈적 감상을 넘어 <단군신화> 텍스트와 학습자가 상호 교류하는 비평적 활동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선행 연구를 되돌아보면, <단군신화> 텍스트에 대한 1차적 독해가 의외로 적다는 점이 다소 의아스럽다. 선행 연구 중 상당수는 <단군신화>에 제시된 표현에 의거하여 인물의 특징,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 사건의 전개 등을 해명한 후 상징적 해석으로 나아갔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건국신화 갈래라는 특징에 경도되어 텍스트 속 대부분의 표현을

-
- 5) 이병찬에 따르면 7차 문학 교과서에서 <단군신화>를 일부 혹은 전체 수록한 교과서는 18종 14종이며,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서 <단군신화>에 접근하는 관점은 신화적 이해와 문학적 이해 혹은 민족의 정체성 교육 등으로 드러난다. 이병찬, 「단군신화 교육의 전체와 방법적 제안」, 『국제어문』 53, 국제어문학회, 2011, 224-228면 참조
- 6) 권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 (주) 지학사, 2015, 125-129면 ; 김대용 외, 『고등학교 문학』, 상문연구사, 2015, 272-274면 ;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두산동아, 2015, 181-185면.
- 17) 황혜진에 따르면 현대 학습자들의 <단군신화> 수용 양상은 ‘민족적 이념에 대한 관심’, ‘인격적 미덕에 대한 관심’, ‘신화에 대한 역사적 관심’, ‘신화에 대한 서사적 관심’, ‘개인적 전유에 대한 관심’ 등으로 구분된다. 황혜진, 「단군신화에 대한 현대 학습자의 수용 양상과 특성」, 『국어교육학연구』 43, 국어교육학회, 2012, 600-610면 참조.

곧바로 상징체계 속에 용해시킨 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군신화> 텍스트에 대한 1차 독해가 적은 현상은 아마도 <단군신화>에 대한 해석이 논란의 여지없이 자명하다는 전제를 함축할 것이다. 그러나 <단군신화> 속 환웅, 곰, 범은 무엇을 상징하며 곰과 범의 인간-되기에서 어떤 신화적 의의를 추출할 수 있는지를 거론하기 이전에 환웅, 곰, 범의 행동이 무엇이며 곰과 범의 인간-되기 과정이 어떠한지를 섬세하게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

본 논문은 <단군신화> 텍스트에 대한 1차적 독해에 집중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기존 해석에서 다소 간과되었던 측면은 없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군신화>에서 고조선의 건국 과정과 맞먹는 분량으로 제시된 단군의 탄생 과정⁸⁾을 변화와 성장의 서사로 파악하고, 이것이 곧 진정한 인간-되기의 서사⁹⁾임을 논의함으로써 <단군신화>가 지닌 문학적 가치를 보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검토 자료는 <단군신화>에 대한 기록물¹⁰⁾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작품인 <삼국유사> 권1 기이(紀異) 제1의 <고조선(古朝鮮) 왕검 조선(王儉朝鮮)>이다. <고조선 왕검 조선>의 내용은 크게 (1) 단군왕검·고조선 국가에 대한 소개 (2) 단군의 탄생 과정 (3) 단군왕검의 즉위 이후로 나뉜다. 우리에게 <단군신화>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는 두 번째 부분

8) 이병찬은 웅녀의 변신 부분을 “하나의 완성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앞의 논문, 234면)으로 파악하였는데, 본 논문은 웅녀의 변신뿐만 아니라 단군의 탄생 과정을 다룬 이야기가 인간-되기의 서사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9) 정운체는 “고조선을 세우는 과정에서 단군왕검이 태어나게 된 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민족이 고조선을 세운 과정이란 곰이 환웅 천왕을 만나 웅녀가 되고 또 단군왕검을 낳는 과정과 맞먹는 셈”이며, 따라서 “우리 민족은 ‘진정한 인간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을 본원적으로 간직한 민족”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지만 구체적 분석이 생략되어 있어 아쉬움은 남긴다. 정운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통일서사』, 『통일인문학논총』 47,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09, 10면.

10) 주지하다시피 <단군신화>는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휴의 <제왕운기>, 권람의 <응제시주(應製詩注)>,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전한다. 기록상의 차이는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35면 참조.

인 단군의 탄생 과정이다.¹¹⁾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1) 단군왕검·고조선 국가에 대한 소개 부분¹²⁾과 (3) 단군왕검 즉위 이후 부분¹³⁾에서는 다양한 서적을 인용하며 고조선의 건국 시기, 도읍의 위치, 비슷한 시기의 중국 왕조, 고조선 관련 중국의 기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각종 자료를 인용하고 비교하며 단군왕검이라는 인물, 고조선이라는 국가를 역사 속 실체처럼 다루는 방식은 단군의 탄생 과정을 서술한 두 번째 부분과는 사뭇 다른 관점을 담아내고 있다.

단군의 탄생 과정은 <단군신화>의 ‘신성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으로 간주된다. 신화의 신성성은 ”위대하거나 숭고한 행위로써 성립”되는

-
- 11) 7차 교육과정 초등 국어 교과서(교육인적자원부, 국어 읽기 6-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편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에 ‘단군의 건국 이야기’로 수록된 내용도 단군의 탄생 과정을 중심으로 각색한 것이다.
- 12) <위서>에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었다.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경에는 무염산이라 하고 백악이라고도 하니 백주에 있다. 혹은 개성 동쪽에 있다 한다. 이는 지금의 백악궁이다)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일컬었으니 고(高)와 같은 시대였다.(魏書云 乃往二千載 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經云無葉山 亦云白岳 在白州地 或云在開城東 今白岳宮是) 開國號朝鮮 與高同時) <삼국유사>권1 기이 제1 <고조선 왕검 조선>.
- 13) (단군왕검은) 당고가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당고의 즉위 원년은 무진년이다. 그러니 50년이면 정사요 경인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지 의심스럽다)에 평양성(지금의 서경)에 도읍하여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니 궁궐 산(궁(弓)을 방(方)으로 한 것도 있다.)이라고도 하고 또 금미달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또 주나라 호왕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함에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기었다가 후에 아사달로 돌아와 숨어 산신이 되었는데 그때 나이 1908세였다. 당의 <배구전>에 전하기를 고려는 본시 고죽국(지금의 해주)인데 주나라에서 기자를 봉해 줌으로써 조선이라 하였다. 한나라에서는 3군으로 나누어 설치하였으니 이것이 곧 현도·낙랑·대방(북대방)이다. <통전>에도 이와 같다.<한서>에는 진번·임둔·낙랑·현도 4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군이라 하였고 그 이름도 같지 않으니 무슨 이유인가?(以唐高即位五十年 庚寅(唐高即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 疑其未實) 都平壤城(今西京)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一作方)忽山 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虎王即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 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唐裴矩傳云 高麗本孤竹國(今海州) 周以封箕子爲朝鮮 漢分置三郡 謂玄菟樂浪帶方(北帶方) 通典亦同此說(漢書則眞臨樂玄四郡 今云三郡 名又不同 何耶) <삼국유사>권1 기이 제1 <고조선 왕검 조선>.

바, “반드시 특이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없는 “난생(卵生), 기아(棄兒), 짐승의 보호 또는 표류, 불가능에 가까운 시련의 극복, 거대한 승리 등”¹⁴⁾으로 드러나곤 한다. 이런 관점에 따라 단군 탄생 과정 중 환웅의 하강, 웅녀의 변신 등도 <단군신화>의 신성한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다른 부분과 달리 단군의 탄생 과정에서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여 등장인물 사이의 상호 관계를 형성하며, 인물의 행동 속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등 서사적 성격이 부각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조선(古朝鮮) 왕검 조선(王儉朝鮮)> 속 단군의 탄생 과정은 <단군신화>의 중핵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은 단군의 탄생 과정을 중심으로 <단군신화> 속 변화와 성장의 서사를 고찰할 것이다.

2. 단군 탄생 과정 속 변화: 세 가지 화(化)

단군의 탄생 과정은 세상과 존재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드러낸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단군의 탄생 과정에서 ‘변화(化)’는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하나의 계열을 형성하고 있다. ‘변화(化)’가 문면에 언급된 구절은 ‘세상을 다스려 변화하게 하였다[在世理化].’-‘변화하여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願化爲人].’-‘잠시 변화하여 웅녀와 혼인하였다[假化而婚之].’로 각각 인간 세상의 변화-곰의 변화-환웅의 변화와 관련된다.

단군 탄생 과정 속 변화는 주체가 다르며 포괄하는 범위도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변화들 사이의 관계도 복잡적이다. 인간 세상의 변화는 곰의 변화와 환웅의 변화를 포함하는 상위 변화이며, 인간 세상의 변화는 곰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고, 곰의 변화는 환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

14)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한글개정판)』, 일조각, 2006, 56면.

행 사건이다. 또한 꿈의 변화는 두 가지 단계로 차근차근 이루어지되 변화의 내용이 존재의 성장으로 파악할 만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단군 탄생 과정에 나타난 세 가지 변화는 서로 맞물려 변화와 성장의 서사를 구성하기에 단군 탄생 과정을 차근차근 읽어가며 텍스트를 면밀히 분석해야 변화의 서사와 성장의 서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원문의 뉘앙스가 해석본에 섬세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에 분석 텍스트로 해석본과 원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관점을 전제하며 단군 탄생 과정을 차례대로 읽어보자.

<고기>에 말한다. 옛날에 환인(제석을 이른다)의 서자 환웅이 늘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하여 구하였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산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3개를 주며 가서 다스리도록 하였다.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환인과 환웅을 소개하고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된 경위를 서술하고 있다. 이계(異界)의 존재인 환웅이 인간 세상에 뜻을 두자, 아버지인 환인이 그 뜻을 짐작하여 인간 세상을 다스릴 만한 조건을 갖춰 준다는 내용이다. 신성한 존재인 아버지와 아들의 계통이 밝혀져 있고, 아들의 뜻을 뒷받침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천상계 아들의 인간 세상 통치는 자연스러운 일로 허락받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주목을 요하는 구절은 ‘탐구인세(貪求人世)’ 즉, ‘인간 세상을 탐하여 구하였다.’는 것이다. ‘탐구인세(貪求人世)’는 앞 구절인 ‘늘 천하에 뜻을 두었다 [數意天下].’는 구절과 이어져 인간 세상에 대한 환웅의 간절한 지향을 담아낸다. 간절한 지향을 드러내는 표현은 다양할 수 있을 터인데 ‘탐하여 구한다.’는, 신이한 세계의 신성한 존재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탐(貪)’은 ‘찾다(探)’와 통용하여 사용하므로 ‘구하다’, 조금 더 나아가 ‘바라다’, ‘희망하다’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구하다’는 의미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잉여의 영역이 ‘탐(貪)’에는 포함되어 있다. ‘탐(貪)’의 제1의미는 ‘사물에 욕심을 내는 것(欲物也)’¹⁵⁾이며 ‘탐구(貪求)’는 ‘욕심을 부려 구하다.[むさぼり求める]’(『대한화사전』) 또는 ‘탐욕스럽게 구함. 또는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추구함’(『한한대사전』)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상의 뜻풀이를 감안할 때, ‘탐구인세(貪求人世)’는 ‘욕심이 많아 만족할 줄 모르다’, ‘탐내다’, ‘욕심 부리다’ 등 바라는 바가 과하다는 의미 혹은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갖고자 욕망한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다. 즉, ‘탐구인세(貪求人世)’는 환웅이 인간 세상을 구하는 마음이 보통 이상으로 강렬하며, 노골적으로 표출되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아버지 환인이 알아차렸던 아들 환웅의 뜻은 바로 소망 성취의 간절함일 것이다.

환웅이 인간 세상을 탐하여 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환인이 환웅을 인간 세상으로 내려 보내며 기준으로 삼은 바,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弘益人間.)’와 관련될 것이다. 환인이 환웅을 인간 세상으로 보낸 이유도, 환웅이 인간 세상으로 그토록 간절하게 오고 싶어 했던 이유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목표로 귀결될 터이다. 이제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실행하였느냐가 이어진다.

환웅은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태백은 지금의 묘향산) 정상에 있는 신단수 아래 내려와 이곳을 신시라 이르니 이 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변화하게 하였다.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即太伯今妙香山)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15) 모로하시 데즈지(諸橋轍次), 『대한화사전』 권10, 대수관서점, 1985(수정판), 11158면; 『한한대사전』 1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8, 65면 참조.

환웅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환웅천왕이 되었다.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였는데, 그 중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두었다. 곡식을 주관하였고(主穀), 생명을 주관하였고(主命), 질병을 주관하였고(主病), 형벌을 주관하였고(主刑), 선악을 주관하였다(主善惡). 신의 관할인 생명 분야, 신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왕이 관장하는 질병과 곡식 분야, 왕의 책임 소관인 형벌과 선악의 분야가 골고루 망라되어 있다.

환웅은 신의 권능과 왕의 책임을 다하며 ‘재세이화(在世理化)’, 즉 세계를 다스려 변화하게 하였다. 흔히 이 구절의 ‘화(化)’는 ‘교화하다’로 풀이된다.¹⁶⁾ 환웅이 인간 세상에서 일으킨 변화의 표현이니 ‘교화하다’로 풀이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화(化)’를 ‘교화하다’로 풀이할 때,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한 사건과 이어지는 곰과 범의 인간-되기 사이의 연결고리는 감춰지고 전후 사건은 분리될 위험이 있다.

앞서 환웅이 ‘홍익인간’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 세상에서 행한 일의 대체가 드러났다. 후속 이야기는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곰과 범이 사람이 되려는 사건이다. 환웅이 인간 세상에서 주관한 360여 가지 일과 환웅, 곰, 범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환웅이 주관한 무수한 일 중 그저 신이한 한 가지 사례일 뿐이라고 치부하고 만다면 전후 사건의 관계를 너무 험겁게 파악하는 것이다.

전후 사건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단군신화>를 읽을 때 단서를 제공하는 구절이 ‘재세이화(在世理化)’이다. 그중에서도 ‘화(化)’가 실마리이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곰과 범의 변화, 즉 ‘화(化)’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후 사건을 연결시켜 환웅이 야기한 변화의 구체적 사례로 곰·범의 변화가 제시되었다고 볼 때, 환웅이 세상에 가져온 변화는 인간들의 교화로 국한되지 않고 인간 세상 전반의 변화로 확장된다.

‘화(化)’를 ‘교화하다’로 풀이할 때 남는 아쉬움은 이것만이 아니다. ‘가

16) 2015년판 문학 교과서의 본문에서는 모두 ‘교화(教化)하였다’로 풀이되었다.

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다.’¹⁷⁾는 의미의 ‘교화하다’는 일반적으로 정신 영역의 사상, 윤리, 가치관, 관습 등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 속 꿈과 범의 변화는 다름 아닌 육신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재세이화(在世理化)’의 ‘화(化)’는 ‘교화하다’로 포괄되지 않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아야 한다.

‘재세이화(在世理化)’는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주관한 다양한 일들을 집약하는 구절인 동시에 다음에 이어지는 꿈과 범의 변신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구절인 셈이다. 환웅의 다스림을 받던 인간 세상의 피조물 중 하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로 탈바꿈하는 이야기는 환웅이 변화시킨 세상의 특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만하다. 이상의 논의는 <단군신화>가 화(化), 즉 변화를 다루는 이야기라는 첫 번째 근거이다.

3. 단군 탄생 과정 속 성장 : 신(身)에서 혼(婚)으로

3.1. 신(身) : 인간의 육신 얻기

이제 단군의 탄생 과정 속 변화의 구체적 사례가 제시된다. 변화의 사례는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 꿈과 범이 사람이 되려 한 사건과 꿈이 결혼하여 단군을 낳는 사건이다. 앞 사건의 중심인물은 꿈과 범이며, 뒤 사건의 중심인물은 웅녀와 환웅으로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긴밀하게 관련된 사건이다. 두 사건을 연결시키는 단서는 인간의 ‘육신(身)’이다.

17)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교화하다” 항목 (2015년 4월 25일 검색)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며, 항상 신웅에게 “화(化)하여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빌었다. 신웅은 신령스런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며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곰 인간의 형상을 얻으리라.” 하였다.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들였다. 곰은 삼칠일 동안 금기하여 여자의 몸을 얻었으나 범은 금기하지 못하여 인간의 몸을 얻지 못하였다.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神遺靈艾一炷 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곰과 범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다. 곰과 범에 대한 첫 정보는 곰과 범이 같은 굴에 거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 종족이 아닌 곰과 범이 같은 굴에 거처한다는 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동혈이거(同穴而居)’는 곰과 범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단서로 읽어야 한다. 곰과 범은 비록 종족이 달랐지만 같은 근거지에서 함께 생활을 영위하던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곰과 범의 공통점은 근거지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늘 신웅에게 소망을 빌었는데, 소망의 내용 또한 동일하였다. 생활의 근거지가 같고, 동일한 내용의 간절한 소망을 공유하였던 관계이니 곰과 범은 유달리 특별한 사이였음을 짐작케 한다. 첫머리에서 부각된, 곰과 범 사이의 각별한 관계는 후반부 소망 성취의 상반된 결과와 대비되며 곰이 이룬 성취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든다.

곰과 범의 소망은 ‘원화위인(願化爲人)’, 화(化)하여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저 ‘인간이 되는 것’이라 말하지 않고, ‘화(化)하여’를 추가하였으니 곰과 범이 인간이 되는 사건 중 현재의 존재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사정이 특별히 강조된다. 여기서 ‘화(化)’는 앞서 살핀 ‘재세이화(在世理化)’와 연결되며 환웅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시키는 구체적 사례로 기능한다.

곰과 범이 소망을 빌었던 ‘신웅(神雄)’은 물론 환웅을 가리킨다. 환웅의

신적 속성과 인간적 속성 중 신의 속성을 부각시킨 표현인데, 곰·범의 존재 변화는 환웅이 지닌 신의 속성과 관련된 국면이기 때문이다. 환웅이 인간 세상에서 주관하였던 360여 가지 일 중 존재의 변화는 해당 존재가 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명(命)을 바꾸는 일이니 ‘생명을 주관하는 것[主命]’¹⁸⁾과 관련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곰과 범의 소망에 대한 환웅의 답변이다. 환웅은 조건부로 소망의 성취를 약속한다. 환웅이 약속한 결과는 곰과 범이 소망했던 것과 일치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미묘하게 빗나가 있다. 자신이 내건 두 가지 금기 사항을 지키다면 ‘곧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便得人形)’고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곰과 범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는데, 환웅은 사람의 형상을 약속하였다.

이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환웅은 쉽지 않은 금기의 과정을 감당하더라도 곰과 범은 오직 절반의 소망을 얻을 뿐이라고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곧 곰과 범이 자신들의 소망을 온전히 성취하기까지 또 다른 단계가 예비 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다. 즉, 인간이 되는 일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몇 단계를 거쳐야 가능한 과정이며, 변화란 서서히 진행되는 일이라고 알려 준 것이다.

이제 곰과 범은 자신들의 소망이 절반만 이루어지는 시험일지라도 받아들일 것이냐, 소망을 포기할 것이냐는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였다. 환웅이 내건 금기는 에너지의 근원인 빛과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니 사실상 생명 활동의 중단이라 할 것이다. 빛을 완전히 끊고 최소치의 식물만을 섭취하여 생명 활동이 중단되고 현존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 가능하다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환웅이 건넨 쑥과 마늘을 받아먹으며 곰과 범은 나란히 시험에 들었다.

18) 서대석은 주명(主命)을 “태어나고 죽는 일을 보살피는” 것이기에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녀의 혼례를 거쳐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남녀의 결혼을 주관하고 자손을 낳아 양육하는 일과 늙어서 죽게 되면 장례를 치르는 일을 관장”하는 것이라 파악하였다. 앞의 책, 46면.

곰은 금기를 하여 여인의 몸(女身)을 얻었고, 범은 금기하지 못하여 인간의 몸(人身)을 얻지 못하였다. 흔히 이 결과는 곰의 성취와 범의 실패가 대조되며 교훈으로 정리되지만, 시험의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른 데에 있다. 곰과 범이 얻거나 얻지 못한 것이 ‘몸(身)’으로 명시된 점과 시험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였기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후자의 의문을 먼저 살펴보자. 문제는 텍스트에서 시험의 시작과 결과만 알려줄 뿐 시험의 과정에서 곰과 범에게 발생한 일을 서술하지 않았기에 발생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곰과 범이 시험의 시작은 함께 하였으나 그들의 시험 결과는 달랐다는 점뿐이다. 변화란 하나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시험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였기에 범은 소망을 성취하고 범은 그렇지 못하였느냐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서사 속 사건은 원인과 결과의 인과 관계를 통해 조직된다. <단군신화>에서는 곰은 금기하여 여인의 몸을 얻었고, 범은 금기하지 못하여 인간의 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결과만 제시하였을 뿐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서사 속 생략된 원인은 흔히 결과를 통해 거꾸로 유추되는바, 단군 탄생 과정 속 곰과 범이 맞이한 상반된 결과의 원인은 곰의 인내심과 범의 끈기 부족으로 파악되곤 하였다.¹⁹⁾

시험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 서술되어 있지 않기에 이러한 해석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단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방식의 이해는 불가능할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건 속 인물의 성격일 수도, 사건 이전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사건이 예비하고 있는 미래의 사건일 수도 있다. 동일한 조건에서 미래의 사건으로 무엇을 예상하느냐에 따라 선택과 행동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존재의 탈바꿈을 위해 곰과 범에게 주어진 시험의 강도는 어느 누구도

19) 7차 초등 국어 교과서의 관점이 대표적이다. “성질이 급한 호랑이는 며칠 만에 굴 밖으로 뛰쳐나오고 말았다.”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읽기 6-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편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92면.

쉽게 상상할 수 없다.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여도 겨우 반쪽짜리 소망을 이룰 뿐이라는 상황은, 받아들이는 이에 따라 희망이 될 가능성과 절망이 될 여지를 모두 안고 있다. 시험 결과에 따를 때, 그 과정에서 희망을 본 쪽은 꿈이고, 절망을 본 쪽은 범이다. 그리하여 꿈은 ‘여인의 몸[女身]’을 얻었고, 범은 ‘인간의 몸[人身]’을 얻지 못한 것이다.

꿈과 범은 모두 존재 변화의 서사를 꿈꾸었지만, 역경이 닥치자 꿈과 범이 지향하는 서사가 달라졌다. 범은 존재 유지 서사를 선택하였다. <단군신화>가 변화의 서사를 지향하는 이야기라고 할 때, 존재 유지 서사를 택한 범에 대한 언급이 이후 이야기에서 사라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반면 존재 변화의 서사를 여전히 지향하는 꿈은 절반의 소망이 성취된 이후 홀로 자신의 소망을 완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환웅이 처음에 약속하였던 금기의 성패와 금기의 결과는 꿈과 범의 경우로 극명하게 대비되며 결과로 제시되었다. 이때 시험의 결과로 꿈이 얻은 것이 ‘여인의 몸’이라는 점은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꿈이 얻은 ‘여인의 몸’은 범이 얻지 못한 ‘인간의 몸’과 동전의 양면처럼 포개져 있기에 꿈과 범의 경우를 함께 고려하여야 꿈이 얻은 ‘여인의 몸’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인간-되기’의 과정 중 ‘신체’에 주목한 조현설은 꿈의 웅녀-되기와 국모-되기를 “자발성이라는 이름으로 웅녀의 신체에 각인된 타율성”²⁰⁾의 발현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견해는 ‘웅녀의 신체’에 집중함으로써 신화 속 여성의 신체에 각인된 타율성을 드러낸다는 장점을 지닌 반면, 호랑이가 얻지 못한 신체에 대한 관심은 부재하기에 인간-되기의 과정에서 인간의 육신이 지닌 의미를 간과하게 된다는 약점을 지닌다.

단군 탄생 과정에서 꿈이 얻은 여성의 몸은 호랑이에게 부재하는 인간의 몸과 연결되어 ‘인간-되기[爲人]’-‘인간의 형상[人形]’-‘여인의 몸[女

20) 조현설, 「웅녀·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구비문학연구』 9, 한국구비문학회, 1999, 7면.

身’/‘사람의 몸[人身]’과 같이 짜임새 있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육신은 인간-되기의 물적 조건으로 반복되고 강조된다.²¹⁾ <단군신화>가 변화를 다루는 이야기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는 몸의 변화, 즉 변신(變身)이 주요 모티프로 다루어고 있는 것이다.

‘신(身)’에 대한 강조는 ‘인간-되기’의 또 다른 조건을 암시하고 있다. 인간의 육신을 강조함으로써 육신을 얻은 웅녀에게 더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인간-되기’의 또 다른 차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존재의 변화 과정에서 필요한 물적 조건을 먼저 언급한 셈이니 이제 변화는 물적 조건을 토대로 하되, 물적 조건을 벗어난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성장의 서사로 연결될 터이다.

3.2. 혼(婚) : 타자와 관계 맺기

범과 함께 생활하며 같은 소망을 지향했던 꿈은 홀로 여인의 몸을 얻었으나 아직 꿈의 소망이었던 인간-되기가 완수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웅녀의 이어지는 행동은 꿈의 소망, 즉 인간-되기가 여전히 진행형임을 보여주며, 여인의 몸을 얻은 결과에서 비롯된 후속 단계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이후 <단군신화>에서 범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사실로 유추하건대 꿈은 소망의 절반을 이루었지만, 함께 지내던 짝을 잃고 홀로 남았다.

웅녀는 더불어 혼인할 이가 없으므로 매번 단수 아래서 아이 잉태하기를 빌었다. 환웅이 이에 잠시 변화하여 웅녀와 혼인하였다.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21) 따라서 이 부분은 꿈 -여인의 몸[女身]과 범 -사람의 몸[人身]으로 비교되고 대조되도록 번역해야 한다. 2015년판 문학 교과서에서는 “꿈은 여자가 되었으나, 범은 ... 사람이 되지 못했다.”(권영민 외, 125면), “꿈은 여자의 몸이 되었지만, ... 호랑이는 사람의 몸이 되지 못했다.”(김대용 외, 273면), “꿈은 여자의 몸을 얻었지만, 범은 ... 사람의 몸을 얻지 못했다.”(김창원 외, 181면)로 풀이하였다.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祝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壇君王儉

여인의 몸을 얻었지만 웅녀에게는 ‘더불어 혼인할 이’가 없다. 이는 인간-되기의 다음 조건이 관계 맺기임을 알려준다. 인간-되기의 첫 번째 단계가 육신 얻기임은 환웅이 알려주었지만, 다음 단계인 관계 맺기는 누군가의 충고 없이 웅녀 스스로 깨닫고 확인하고 있다. 다른 이와 관계 맺기가 인간 존재의 근원적 조건이며 다른 이와 ‘더불어[興]’ 지내야 비로소 인간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관점이 드러난다.

다른 이와 더불어 지내는 관계는 ‘혼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자식, 형제/남매/자매, 친척, 군신, 친구, 연인, 이웃, 원수 등 다양한 인간관계가 존재할 터인데, 웅녀의 소망이 유독 혼인 관계로 집중된 이유는 무엇일까? 웅녀가 꿈에서 인간으로 탈바꿈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존재 자체의 변화로 인해 꿈의 기존 관계는 절연된 반면, 웅녀의 새로운 관계는 전무한 상태이다.

웅녀는 혈연으로 맺어진 인간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이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했을 것이다. 웅녀의 선택은 혼인 관계였기에 웅녀는 단수 아래에서 다시 소원을 빌며 혼인으로 다른 이와 관계 맺기를 소망하였다. 웅녀의 기도 내용에는 웅녀가 혼인 관계를 원한 이유가 드러나 있다. ‘아이를 잉태하는 것[有孕]’, 웅녀는 부모-자식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혼인 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웅은 ‘잠시 변화하여 웅녀와 혼인하였다[假化而婚之].’ 환웅이 변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환웅과 웅녀가 동일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환웅은 신의 속성을 지닌 존재이고, 웅녀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변화한 존재이다. 혼인 관계를 위해 변화하는 쪽은 환웅이지만 웅녀는 이미 존재 변화를 겪은 상태이니, 결국 혼인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만나되 존재의 변화 속에서만 가능한 사건이라는 관점을 읽어낼 수 있다.

단군 탄생 과정을 관통하는 주요 단어인 ‘화(化)’가 여기서 다시 등장하

었다. 앞서 ‘화(化)’는 환웅의 통치에 의한 인간 세상의 변화를 서술할 때와 곶과 범이 인간으로 변화하려는 소망을 드러낼 때 등장하였으며 이제 웅녀의 인간-되기 소망이 완수되는 지점에 다시 나타났다. 이처럼 단군 탄생 과정 속 변화는 인간 세상의 변화-곶의 변화-환웅의 변화라는 구도를 형성하며 서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 환웅의 변화만 ‘잠시[假]’ 동안 이루어졌다는 점도 흥미롭다. 환웅과 웅녀의 혼인 관계는 지속되지 않았는데, 이는 웅녀가 혼인을 원했던 이유가 ‘잉태[孕]’를 지향하였기 때문이며 웅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였던 관계가 부부 관계이기보다는 부모-자식 관계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잉태[孕]’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 변화의 상태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혼인 관계의 지속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관점도 읽어낼 수 있는 측면이다.

혼인의 결과로 웅녀가 단군왕검을 낳음으로써 웅녀의 인간-되기 변화는 일단락되었고, 곶의 성장 서사도 마무리 되었다. 곶의 성장 서사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인 동시에 인간-되기 서사의 전형적 사례로 간주될 만하다. 곶이 여인의 몸을 얻고 어머니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존재의 탈바꿈은 인간 성장의 필수적 요소임을, 혼인 관계와 모자 관계를 통해 관계 확산은 인간 성장의 필연적 원리임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웅녀가 단군왕검을 낳은 후 텍스트에서 웅녀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는 이유는 웅녀의 성장 서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단군왕검의 즉위 이후 부분에서 단군왕검의 통치로 인간 세상의 변화는 지속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기에 단군 탄생 과정 속 세 가지 변화인 인간 세상의 변화-웅녀의 변화-환웅의 변화는 다시 인간 세상의 변화로 나아가는 순환적 구조로 계승되고 있다.

4. <단군신화> 인간-되기 서사의 의의

본 논문에서는 <단군신화> 중 단군 탄생 과정을 변화와 성장의 서사라는 관점에서 독해하였다. <단군신화>의 기존 독해는 텍스트가 지닌 상징성과 신성성의 확인에 집중되어 있었던바, 텍스트의 해석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면이 있다. 텍스트에 집중할 때, 단군 탄생 과정은 세상의 변화-웅녀의 변화-환웅의 변화를 보여주는 변화의 서사이자 화(化)-신(身)-혼(婚)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서사라 할 수 있다.

단군 탄생 과정 속 변화는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옴으로써 본격화된다. 이어지는 곰과 범의 인간-되기 사건은 환웅이 다스리는 인간 세상 변화의 극적인 사례로 파악할 수 있다. 곰과 범은 존재 변화의 서사를 함께 소망하였던 친밀한 관계였다. 혹독한 시험 과정에서 곰이 존재 변화 서사 속 희망을 품고 금기하여 여인의 몸을 얻은 반면 범은 존재 유지의 서사를 선택하며 금기를 어기면서 인간의 몸을 얻지 못하였다.

곰이 홀로 여인의 몸을 얻어 웅녀로 변화하였지만 아직 인간-되기의 소망이 완수된 것은 아니었다. 여인의 몸은 얻었지만 짝을 잃은 웅녀는 부모-자식 관계를 얻기 위한 혼인 관계를 소망하게 되고, 잠시 변화한 환웅과 결혼하여 아들 단군을 낳게 된다. 단군의 탄생 과정은 세상의 변화를 바탕으로 곰-여인의 몸-아내·어머니로 이어지며 세상의 변화-육체의 변화-관계의 변화를 통한 진정한 인간-되기의 서사를 보여준다.

<단군신화>는 결국 우리 민족이 생각했던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차근차근 형상화된 이야기이자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되묻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단군의 탄생 과정에서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서사를 지닌 존재야말로 진정한 인간-되기에 다다를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단군신화>가 내포하고 있는 이상의 질문과 답변은 <단군신화>의 현대적 의의를 새롭게 조명하게 한다.

<단군신화>가 문학교육의 제재로 채택될 만한 이유는 고조선의 건국신화라는 문학사적 의의와 함께 현대의 학습자에게 ‘인간-되기’의 문제, 즉 ‘다른 존재가 아닌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학습자가 <단군신화>에서 던지는 물음에 대응하며 <단군신화>를 독해할 때, <단군신화>는 역사적 텍스트인 동시에 학습자의 동시대 텍스트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삼국유사(三國遺事)>

-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읽기 6-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편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 권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 (주) 지학사, 2015.
- 김대용 외, 『고등학교 문학』, 상문연구사, 2015.
-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두산동아, 2015.
- 모로하시 데즈지(諸橋轍次), 『대한화사전』 권10, 대수관서점, 1985(수정판).
『한한대사전』 1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8.
- 강명혜, 「단군신화 새롭게 읽기」, 『동방학』 1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7, 7-37면.
- 강영경, 「단군신화에 나타난 웅녀의 역할」, 『여성과 역사』 16, 한국여성사학회, 2012, 37-68면.
- 김기호, 「단군신화에 관한 문학적 연구 현황과 전망」,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31-75면.
- 김성호, 「문화적 공존을 위한 단군신화의 재해석」, 『글로벌문화컨텐츠』 8, 글로벌 문화컨텐츠학회, 2012, 57-79면.
- 문홍구, 「단군신화 교육 방법론 연구」, 『새국어교육』 59-1, 한국국어교육학회, 2000, 69-81면.
-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 이병찬, 「단군신화 교육의 전제와 방법적 제안」, 『국제어문』 53, 국제어문학회, 2011, 219-256면.
- 이화형, 「단군신화의 주체의식 검토」, 『우리어문연구』 47, 우리어문학회, 2013, 125-150면.
- 임재해, 「단군신화로 본 고조선 문화의 기원 재인식」, 『고조선단군학』 19, 단군학회, 2008, 277-372면.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한글개정판)』, 일조각, 2006.
- 전규태, 「한국 신화의 문학적 연구서설」, 『인문과학』 13,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65, 97-112면.

전영숙, 「단군 이야기와 문학치료」, 『문학치료연구』 1, 한국문학치료학회, 2004, 125-144면.

정병욱·이어령, 『고전의 바다』, 현암사, 1977.

정운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통일서사」, 『통일인문학논총』 47,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09, 5-28면.

조현설, 「웅녀·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구비문학연구』 9, 한국구비문학학회, 1999, 1-20면.

_____, 「근대계몽기 단군신화의 탈신화화와 재신화화」, 『민족문학사연구』 32, 민족문학사학회, 2006, 10-32면.

황혜진, 「단군신화에 대한 현대 학습자의 수용 양상과 특성」, 『국어교육학연구』 43, 국어교육학회, 2012, 597-636면.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Abstract

Reading Dangun Myth As a Narrative of Changes and Growth

Cho, Hee-jung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reading Dangun Myth without searching cultural symbols and sacredness of myth in literature education. This study finds a narrative of changes and growth in Dangun Myth. Dangun Myth is divided into three contents, which were an introduction to Dangun Wangum and Gochosun, a birth process of Dangun and the rein of Dangun.

The second part is a narrative of changes, which include changes of the world here below —a change of a bear's body into woman's body —a change of holly Hwanung. Also the second part is a narrative of growth, which is change —body —wedding(including pregnancy).

⊕ **Key Words** : Dangun Myth, literature education, appreciation, change, growth, narrative, human being—becoming

·투고일 : 2015. 4. 29. 심사 완료일 : 2015. 6. 1. 게재 확정일 : 2015. 6. 10.